

독서 빨달과 독자 빨달의 단계에 대한 고찰

천경록 광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I. 서론
- II. 선행 연구와 쟁점 검토
- III. 단계에 대한 새 제안
- IV. 결론 및 시사점

I. 서론

오늘날의 독서교육은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유치원, 도서관, 학원, 대학, 직장, 지방자치단체, 중앙 정부(교육부, 문화부) 등 여러 주체와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독서교육은 독자의 독서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주체들 사이에 독자의 독서 능력이 어떻게 발달하는가에 대한 공유된 관점으로서 단계의 모형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독서 능력은 독자의 심리적 현상이다. 인지 심리적 현상은 관찰하기가 쉽지 않으며, 개인차가 있다. 따라서 단계를 제안하더라도 과학적 증명이 쉽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경험적 연구에 의해 독서 능력의 발달이 완전하게 증명될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독서교육을 실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들을 토대로 독서 발달(reading development)의 단계를 설정한 후에 그에 따라 독서교육을 실행하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모델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더 적절하다.

국내에서는 독서 발달과 관련하여 천경록(1999)의 연구가 발표된 후 약

20년이 흘렀다. 그간 몇몇 연구자들이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비판적 논문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그간의 논의를 점검해 보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 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개발 연구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독서 발달은 독자의 독서 능력 발달을 뜻한다. 주로 인지적 발달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부분적으로 정의적 발달도 고려하였다. 연구를 위해 독서의 인지적 요인과 정의적 요인을 구별해 볼 수는 있고, 동기나 태도 등과 같은 정의적 요인의 발달을 추적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의 독서 과정에서 이들이 분리되어 일어나지는 않는다.¹⁾ 하여 정옥년(2007)에서 다룬 것처럼 독서 동기와 태도의 발달과 같은 정의적 영역의 하위 요인별 발달의 문제는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는다.

인지적 요인에서는 해독과 독해 능력의 발달이 주가 된다. 이들을 중심으로 미시적인 접근보다는 거시적인 접근에서 살펴본다. 예를 들어 해독 기능의 발달만 하더라도 모음자는 단모음, 복모음, 이중 복합모음 글자 등으로, 자음자는 홀받침, 겹받침, 소리가 변하는 받침 글자 등 여러 가지로 발달의 상세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적인 구분은 성취기준이나 교과서 개발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거시적인 독서 발달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1) 예를 들어 임미성(2011)에서는 아동기 독자를(본고의 용어로는 어린이 독자) 대상으로 인지적 전략이 정의적 태도를 추동하고, 정의적 태도가 인지적 전략을 추동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있다.

II. 선행 연구와 쟁점 검토

1. 선행 연구 분석

독서 발달을 탐구한 저술 중에서 영어권 연구로는 Chall(1996)의 연구가 이 분야의 고전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성영, 2008). 그러나 Chall의 연구는 천경록(1999)에서 비교적 상세히 소개한 바 있고, 영어 자모와 국어의 자모는 자소와 음소의 대응(특히, 모음의 자소와 음소)에 차이가 있어서 영어권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독자들의 독서 발달 단계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유창성 단계가 그러하다. 영어권 독자들은 해독과 음독을 통하여 읽기 유창성을 획득하는데 국어 독자들보다 더 오랜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독서 발달과 관련된 주요 논의를 시간 순서로 살피면 다음과 같다.

천경록(1999)은 유치원 시기와 초중등 학교교육 시기의 읽기발달 단계를 일곱 단계로 제안하였다(<표 1> 참조).

<표 1> 읽기 발달 단계 (천경록, 1999: 273)

읽기 발달			읽기 발달 부진	
단계	시기	주요 특징	교정읽기	치료읽기
1. 읽기 맹아기	유치원 시기까지	음성 언어 시기, 읽기 이전 시기, 하향식 모형	—	—
2. 읽기 입문기	초등저학년 (1-2학년)	문자 지각, 해독, 자소-음소 관계 파악, 음독, 읽기 학습의 시기, 상향식 모형	—	—
3. 기초 기능기	초등중학년 (3-4학년)	기초 기능 발달, 낭독, 음독과 묵독의 과도기, 학습 읽기의 시작, 주로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 보조	1년 지연	2년 이상 지연

4. 기초 독해기	초등고학년 (5-6학년)	기초 기능 숙달, 묵독, 기초 독해 기능, 학습 읽기의 시기, 의미 중심의 글 읽기, 하향식 모형과 상향식 모형	1년 지연	2년 이상 지연
5. 고급 독해기	중학 1-2학년 (7-8학년)	추론, 글 구조파악, 작가의 관점 파악 및 비판, 상호작용 모형	1년 지연	2년 이상 지연
6. 읽기 전략기	중3- 고등1년 (9-10학년)	초인지, 읽기 전략 구사, 독자와 작자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 상호작용 모형	1년 지연	2년 이상 지연
7. 읽기 독립기	고등학교 2학년 이후	교양, 학문, 직업 세계의 읽기, 상호작용 모형	—	—

읽기²⁾ 발달을 해독과 독해로 크게 구분한 후에 독해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발달 단계를 구분하였다. 초중등 학교교육 기간을 2년씩 여섯 단계로 나누고, 해독과 독해의 발달을 중심으로 단계를 구분하였다. 한편, 정상적 발달에 비해 읽기 부진이 일어나는 경우를 교정 독자와 치료 독자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박영민(2003)은 독서 발달에서 음독에서 묵독으로 이행을 중시하였다. 독서 발달에서 이행 시기를 중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인류의 독서 역사는 음독기, 이행기, 묵독기로 발전해 왔고, 그 이면에 구술 문화에서 문자 문화로의 변화가 있다고 하였다. 개인의 독서 발달도 이와 유사하게 음독에서 묵독으로 발전하는데, 이행의 시기가 '결정적 시기'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독서 발달을 논의할 때 단순히 신체적 연령이나 학교급별 차이를 강조하기보다는 음독에서 묵독으로의 변화를 중심축으로 삼아야 하며 독서의 발달은 직선적 궤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곡선적 궤적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p. 80).

최영환(2007)에서는 독서의 인지적 발달과 사회적 관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인지 발달 이론을 검토한 후에, 두 이론 모두에서

2) 이 연구에서는 읽기와 독서를 동의어로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연구자가 읽기를 사용한 경우는 읽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단계와 단계 사이의 발달을 이행이 아니라 소유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단계를 구분할 때, 새로운 단계는 이전 단계의 특성을 버리고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단계의 특성을 소유한 채 새로운 단계의 특성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독서의 발달은 일정한 발달 순서를 정할 수는 있으나 발달로 얻은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독자의 목적에 따른다고 하였다(〈그림 1〉 참조).

독서 사고의 깊이			개인	사회화	개인화
글 단위	독자 연령	독자 목적			
문자	아동 ♡ 성인	독서의 목적 1 독서의 목적 2 독서의 목적 3		독서능력	
단어	아동 ♡ 성인	독서의 목적 1 독서의 목적 2 독서의 목적 3		독서능력	
글	아동 ♡ 성인	독서의 목적 1 독서의 목적 2 독서의 목적 3		독서능력	

〈그림 1〉 독서의 목적과 사고의 깊이 선택 (최영환, 2007: 57)

최영환(2007)은 독서 발달에서 독서 목적을 중시하였다. 하지만 독서 목적을 1, 2, 3으로 제시하여 독서 목적이 다를 수 있음을 가정하였으나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는 않고 있다. 독서가 ‘아동 → 성인’으로 발전한다는 점, ‘개인 → 사회화 → 개인화’로 발전한다는 점, ‘문자 → 단어 → 글’로 발전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단계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성영(2008)에서는 읽기 발달 연구 성과를 접검하고 Chall(1996)의 읽기 발달 이론에 따라서 단계의 명칭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읽기 발달 단계를 Bereiter(1980)가 제안한 쓰기 발달 단계와 호응시켰다(〈표 2〉 참조). 그는 Chall이 제안하지 않았던 단계의 명칭은 제안하였지만 발달 시기나 주요 특징에 대한 정보는 제시하지 않았다. Chall의 이론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Chall이 제시한 발달 시기나 특성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 읽기와 쓰기의 발달 단계 (이성영, 2008: 75)

읽기 발달 단계	쓰기 발달 단계
읽기 맹아기	
읽기 입문기	단순 연상적 글쓰기 단계
유창성 획득기	언어 수행적 글쓰기 단계
의미 읽기기	의사소통적 글쓰기 단계
비판적 읽기기	통합적 글쓰기 단계
창조적 읽기기	인식적 글쓰기 단계

이 밖의 연구자들의 논의는 다음 절의 쟁점 서술에서 다루도록 한다.

2. 쟁점 도출과 해결 방향

천경록(1999) 이후의 연구는 대체로 이 연구를 비판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편의상 천경록(1999)의 연구를 프로토콜로 삼고, 다른 연구자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쟁점을 도출한 후, 이에 대한 해결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이행 혹은 확장

독서 발달 단계를 제시할 때, 이전 단계와 이후 단계 사이의 발전의 본질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만약 독서 능력이 읽기 입문기에서 기초기능기로 발달한다면, 기초기능기의 독자는 읽기 입문기의 독서 특성을 버리고 새로운 단계의 특성을 습득하게 되는가, 아니면 기존의 특성을 보유(소유)한 채 새로운 특성을 갖추는가의 문제이다. 천경록(1999)에서는 이를 분명히 설명하지 않았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독서 발달의 경우는 단계와 단계 사이의 발달은 이 행이 아니라 확장이나 보유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예를 들어, 음독에서 묵독으로 발전하였다고 해도 음독 능력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 읽기 맹아기에서 축적한 ‘배경 지식’은 독자의 머릿속에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 보존됨으로써 읽기 입문기의 단어 해독이나 어휘 학습에 활용된다. 마찬가지로 읽기 입문기에서 기초기능기로 발달해도 읽기 입문기에서 습득한 ‘해독’ 능력은 버려지는 게 아니다. 해독 능력이 자동화되어 독자의 제한된 인지 역량이 독해에 할당됨으로써 독해가 원만하게 진행된다. 그리고 독서 능력이 충분히 발달한 독자라고 하더라도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독자는 그 이전 단계의 능력을 소환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미 묵독 능력을 충분히 발전시킨 독자도 어려운 글을 읽거나 모호한 부분을 때, 글을 소리 내어 읽으면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2) 직선적 혹은 곡선적

천경록(1999)에서는 독서 발달 단계가 학년 수준과 함께 제시되었다. 그러다보니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독서 발달이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이 직선적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비추어졌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실제의 독서 능력은 직선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곡선적 궤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었다(박영민, 2003; 이성영, 2008). 관련하여 엄훈(2011)에서도 발달의 개인차를 근거로 독서 발달 단계가 동일한 출발점을 가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발달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단계의 교육적 유익함과 표현의 난점, 그리고 개별 독자들의 개인차와 관련된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의 학생은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이 나이를 먹고 학년이 올라간다. 그러나 심리적 발달에 해당하는 독서 발달은 그렇지 않다. 현실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독자는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부분적으로는 정체나 후퇴를 겪지만 인지적 평형을 회복하면서 성장한다. 비유적으로 말해 보

면, 등산을 할 때는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것은 분명한데 부분적으로 내리막길도 있다. 일시적으로 내리막길을 걷는다고 해도 하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처럼 독서 발달은 미시적으로는 정체나 지체가 있지만 거시적으로 발달한다.

독서 발달의 곡선적 궤적은 표현하기도 쉽지 않다. 곡선적 발달을 표현하려면 정체, 퇴보, 재도약과 같은 점을 표현해야 하는데 단계 모형에서 일 반화하기가 어렵다. 독서 발달 단계와 관련하여 영미권에서 많이 사용되는 Chall(1996)의 연구나 교육학 분야에서 발달 단계 이론의 기초가 되는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도 곡선적 발달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거시적인 독서 발달 단계는 직선적으로 설정하고, 개별 학생들이 겪는 발달의 개인 차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다루는 게 좋겠다.

3) 성숙 혹은 학습

개인의 독서 발달 단계를 제시할 때 독자의 성숙의 측면에서 바라볼 것인지 학습의 측면에서 바라볼 것인지도 쟁점이 된다. 성숙의 관점은 독자의 자연적 발전에 초점을 둔다. 교육과 같은 외적, 후천적 노력과 상관없이 독자가 어느 시기가 되면 그러한 발달 단계에 도달한다고 본다. 이에 비해 학습의 관점은 개인의 경험이나 교육과 같은 적극적이고 후천적 노력의 결과로 특정의 발달 특성을 소유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전자는 발달의 양상 포착에 주력하고, 후자는 교육적 노력에 중심을 둔다.

본고에서는 독서 발달이 독자의 성숙에 기반을 두지만 후천적인 학습의 결과라는 입장에 선다. 교육, 특히 학교교육에서 독서가 체계적으로 교육되는 이유는 이 능력이 개인이나 사회에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후천적으로 ‘계열성을 갖추어’ 교육이 가능한 능력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독서 발달은 독자 개인의 자연적 성숙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특정 경험이나 교육과 같은 후천적 활동이나 노력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서 발달은 독자 개인의 자연적 성숙보다는 현존하는 독서교육

체제와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나는 학습의 결과로 바라본다.

4) 단계의 수와 명칭

독서 발달 단계를 결정할 때 몇 단계로 구분할 것인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정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연구자에 따라 2단계(아동과 성인), 3단계(음독기, 이해기, 묵독기), 5단계(읽기 맹아기, 읽기 입문기, 유창성 획득기, 의미 읽기기, 비판적 읽기기, 창조적 읽기기), 6단계(읽기 맹아기, 읽기 입문기, 기초기능기, 기초독해기, 고급 독해기, 읽기 전략기, 읽기 독립기) 등 다양하게 가정되고 있다.

독서 발달 단계의 수와 명칭을 수정할 때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 단계는 독서교육 설계와 연동된다는 점이다. 평생독자로 발전을 의도하는 독서교육의 목적과 체제(특히 초중등 학교교육)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단계가 설정되어야 한다.³⁾ 둘째, 각 단계가 질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야 한다. 이전 단계의 독서 수행에 비해 이후 단계의 독서 수행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소통의 편이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학교나 사회에서 독서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쉬운 단계의 명칭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학문적 용어로만 일관하는 것은 소통을 어렵게 한다.

5) 연령/학년과 발달 단계의 특정화

가장 강한 비판은 연령이나 학년을 독서 발달 단계에 함께 제시하는 문제이다. 기초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연령이나 학년을 고정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고, 독자마다 개인차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비판

3) 예를 들어, 독서 발달을 음독기, 이해기, 묵독기의 세 단계로 설정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년 이후의 약 10년가량의 독서 발달을 의미 있게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 학교교육 실행에 유익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적 독서기를 9~10학년 시기로 설정한다면, 어떤 독자는 그 이전에도 비판적 독서 능력을 갖출 수 있고 어떤 독자는 그 이후에야 갖출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을 고려해서인지 국내에서 나온 연구들 중 천경록(1999)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단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연령이나 학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관련 기초 연구가 미흡하더라도 독서 발달 단계에 대한 연구는 결국 독서교육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기 위한 참조 준거로 사용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연령이나 학년과 같은 정보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독서교육에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발달 단계별 독서 양상의 특징화의 의미와 제한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부연 설명하겠다. 앞서 언급한 Chall(1996)의 독서 발달 단계 연구나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도 단계별로 연령을 함께 제시하고 있었다.

III. 단계에 대한 새 제안

1. 단계의 개요와 설정의 관점

지금까지 독서 발달에 대한 선행 연구와 쟁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여기에서는 천경록(1999)의 독서 발달 단계를 수정하여 〈표 3〉과 같이 제안하였다.

주로 독서 능력의 인지적 영역에 토대를 두고 개발하였지만 공감적 독서 단계나 독립적 독서 단계를 설정한 것은 정의적 영역의 발달도 함께 고려한 것이다. 표에 나타난 주요 관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독자 발달과 독서 발달의 단계에 대한 새 제안

독자 발달		독서 발달	독자상	학년	주요 독서 양상	독서 자료나 지도 활동의 주요 특징
유아 독자		읽기 맹아기	잠재적 독자	-K	문자 인식하기 따라 읽기	문자 지각, 해독 시작, 그림책, 글자책, 낱말카드 등 읽기
어린이 독자	전기	읽기 입문기	유창한 독자	1-2	띄어 읽기 유창하게 읽기	소리 내어 읽기, 해독 완성, 기초기능, 낭독, 묵독 시작
	중기	기능적 독서기	기능적 독자	3-4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의미 중심으로 읽기, 묵독 완성, 중핵 기능, 품평히 읽기
	후기	공감적 독서기	사회적 독자	5-6	공감적 독서 사회적 독서	정서적 반응하기, 물입하기, 독서 토의·토론하기
청소년 독자	전기	전략적 독서기	전략적 독자	7-8	전략적 독서	목적 지향적 읽기, 점검과 조정하기
	중기	비판적 독서기	비판적 독자	9-10	비판적 독서	잠복된 의도 파악하기, 맥락 활용하기
	후기	종합적 독서기	통합적 독자	11-12	종합적 독서	다문서 읽기, 매체 자료 읽기, 신토피컬 독서
성인 독자		독립적 독서기	자립적 독자	PS	자율적 독서	학업 독서, 직업 독서, 교양 독서

* K: Kindergarten, PS: Post Secondary

1) 독자 발달과 독서 발달의 연계 제시

독서교육이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과 긴밀히 연계되어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새 제안에서는 독서 발달을 독자 발달(reader development)과 연계하여 제안하였다. 사람의 일생을 보면 ‘유아 → 어린이 → 청소년 → 성인’으로 성장한다. 따라서 독자 발달도 이를 수용할 수 있다. 독서 발달을 독자 발달과 연계시켜 제안함으로써 학교교육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독서 발달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

유아 독자(preschool reader)는 유치원(Kindergarten) 시기까지의 독자를 말한다. 어린이 독자(children reader)는 의무 교육 기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학령기의 독자를 말한다. 청소년 독자(adolescent reader)는 중등학

교 학령기의 독자를 말하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여기에 해당된다. 성인 독자(adult reader)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post secondary)의 독자로, 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하거나 직장에서 직업 세계에 있는 독자를 말한다.

초중등 학교교육에서 독서교육이 체계적으로 실행되는 어린이 독자 시기와 청소년 독자 시기는 다시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였다. 이 시기에 독서 발달의 주요한 변화가 대부분 나타난다.

2) 발달 단계별 독자상 제시

독서 발달의 단계를 제안하려는 목적은 독서교육에 있다.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등에서 독서교육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독서교육 설계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교육 목표나 교육 목적이다. 교육을 기획할 때는 목표, 더 나아가서 목적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그 목표나 목적 달성의 지향점이 되는 인재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기획한 독서교육에서도 교육의 결과로 기대하는 독자상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교육과는 달리 가정교육이나 사회교육 기관의 독서교육에서는 세부적인 교육의 목표 기술보다는 교육의 결과로 기대되는 독자상이 더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다.

독자상은 독자 발달 단계에 대해 심리적,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독서 교육의 철학적 논의에 의거해서 제시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각 단계의 독서교육 목적을 고려하고 독자 발달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자상(讀者像)을 함께 제시하였다. 독자는 <그림 2>와 같은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평생독자(life long reader)로 성장한다.



〈그림 2〉 평생독자의 발달 피라미드

어떤 단계의 독자는 이전 단계들의 독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능적 독자는 기능적 독자 단계의 특성뿐만 아니라 이전 단계인 유창한 독자가 보이는 유창성, 띄어 읽기, 낱말 의미 파악하기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피라미드 위로 올라갈수록 그가 보유한 독서 능력의 레퍼토리는 다양해지고 숙련도는 높아지게 된다.⁴⁾

3) 단계 명칭의 조정

새 제안에서는 독서교육의 여러 주체들이 독서교육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교육에 활용하기 좋도록 아래 〈표 4〉와 같이 단계의 명칭 일부를 수정하고 순서도 일부 조정하였다.

4) 참고로 김혜정(2001: 77)에서는 비판적 읽기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비판적 읽기의 개념을 범주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비판적 읽기를 위한 전제로서 측면적 읽기나 함축적 읽기와 같은 다른 읽기 활동들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것이다.

〈표 4〉 1999년 연구와 새 제안의 단계 명칭 비교

구분	-K	1-2	3-4	5-6	7-8	9-10	11-12	PS
1999	읽기 맹아기	읽기 입문기	기초 기능기	초기 독해기	고급 독해기	읽기 전략기	읽기 독립기	
새 단계	읽기 맹아기	읽기 입문기	기능적 독서기	공감적 독서기	전략적 독서기	비판적 독서기	종합적 독서기	독립적 독서기
독자상	잠재적 독자	유창한 독자	기능적 독자	사회적 독자	전략적 독자	비판적 독자	통합적 독자	자율적 독자

1~2학년 이전 시기는 음독 중심으로 독서가 일어나고 해독 기능이 습득된다. 이에 비해 3~4학년 이후는 묵독 중심으로 독서가 일어나며 독해 능력이 발달한다. 3~4학년 이후는 독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 명칭을 부여하였고, 지금까지 진행된 독서 발달 양상 연구와 국어과 교육과정의 읽기 영역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독서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초중등학교 기간은 2년씩 단계를 설정하였다. 초중등학교 교육에서는 학년군 제도에서 보듯이 2년 정도의 시간을 발달의 주요 단계로 구획하고 있다. 현존하는 교육제도와 조응을 높이고자 2년 단계를 유지하였다. 유치원과 성인 독자의 시기는 이전과 이후로만 구분하였다. 성인 독자의 시기에 비독자(non reader)로 퇴행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단계별로 주요 독서 양상, 독서 자료나 권장되는 독서 활동도 함께 제시하였다.

단계 명칭에서 ‘읽기 맹아기, 읽기 입문기’까지는 ‘읽기’를, ‘기능적 독서기’ 단계 이후부터는 ‘독서’를 사용하였다. 일관성은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명칭을 붙이면 소리 중심으로 읽는 것은 ‘읽기’로, 의미 중심으로 읽는 것은 ‘독서’로 불러왔던 전통을 수용할 수 있고, ‘기능적 읽기기’에서 보듯이 ‘-기’자의 중첩으로 인한 어색함도 해소할 수 있다.

4) 단계별 독서 양상의 특정화와 제한점

각 단계별 독서 양상은 독서 능력의 계열성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는 대부분의 독자들에게서는 해당 시기에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발달 양상이기도 하고, 동시에 해당 시기에 중점적으로 개발시켜야 하는 독서 능력임을 의미한다.⁵⁾ 이는 비고츠키의 근접발달영역 이론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근접 발달영역 이론의 핵심은 발달 과정에 있는 학습자는 특정의 발달 시기에 학습 가능한 발달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각 단계의 독서 양상은 꼭 해당 시기에서만 일어남을 뜻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7~8 학년의 시기를 전략적 독서기로 설정하였다고 해서 이 시기에 비판적 독서의 모습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그 보다는 7~8 학년의 시기에 전략적 독서 능력을 익히고, 9~10학년 시기에 비판적 독서 능력을 익히는 것이 발달적 측면에서 더 자연스럽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3>의 새 제안은 학습독자들이 능숙한 평생독자로서 독서 발달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표 3>의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독서 양상들(문자 인식하기부터 자율적 독서까지)과 관련된 독서 능력을 해당 시기에 학습해 나가기를 권장하고, 최종적으로는 단계별로 관련된 능력을 모두 소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학습 과정을 통해 독서 발달이 완성된 능숙한 독자들은 실제 독서에서는 여러 세부 능력들이나 하위 과정들을 동시적으로(simultaneously) 처리하게 된다.

2. 각 단계에 대한 부가적 설명

1) 유아 독자 시기—읽기 맹아기와 잠재적 독자

독자 발달의 처음은 유아 독자(preschool reader) 시기이다. 이 시기

5) 각 단계의 독서 발달 양상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더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는 유아의 언어 발달이 완성된 후에 말하기 듣기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글자를 인식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구어로 의사소통을 하면서도 도로 표지판의 예에서 보듯이 기호와 같은 상징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렵잖이 인지하는 단계이다. 물론 문자도 그러한 상징체계에 속하며, 문자의 존재를 지각하고, 문자가 구어 소리와 대응된다는 것을 어렵잖하게 인식하는 시기이다. 독서 발달 단계는 ‘읽기 맹아기(萌芽期)’로 독자상은 ‘잠재적 독자(emergent reader)’로 설정할 수 있다.

‘emergent’의 동사형인 ‘emerge’란 말의 사전적 뜻은 ‘생겨나다, 드러나다, 부상하다, 부각되다, (어둠 속이나 숨어 있던 곳에서) 나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봄이 되면 식물의 눈에서는 새순이 나오게 되는데, 아직 새순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식물의 눈 속에서 새순이 자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유아는 미래의 능숙한 독자가 되기 위한 자질을 내적으로 키우고 있다.

이 시기의 독서교육은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일어난다. 이 시기에는 그림책 읽기, 글자책, 낱말 카드 등이 주요 자료이다. 유아 입장에서는 부모나 교사의 안내에 따라 그림책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이해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게 된다. 그림책에 등장하는 글자에 친숙해 지면서 책에 흥미를 가지게 된다. 문자에 대해서는 부모나 교사의 소리 내기를 따라 하거나 동료와 함께 소리 내어 읽게 된다. ‘따라 읽기’가 가장 특징적인 읽기 방법이 된다. 해독 기능에 노출되지만 완성된 단계로 볼 수는 없다.

2) 어린이 독자 전기—읽기 입문기와 유창한 독자

어린이 독자 전기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1~2학년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독서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앞선 유아 독자 시기의 발달을 토대로, 단어 수준에서는 문자 해독하기를 완성해야 하고, 자동성을 갖추어야 한다. 독서 발달 단계는 ‘읽기 입문기(beginning reading)’로, 기대하는 독자상은 ‘유창한 독자(fluent reader)’로 설정할 수 있다.

문장 수준 이상에서는 의미를 구분하여 읽는 ‘띄어 읽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글 수준에서는 ‘유창하게(fluently) 소리 내어’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시기에서는 ‘음독 → 낭독 → 묵독’의 발달이 일어난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 모두를 관찰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의미보다는 소리 중심으로 읽게 된다. 이 시기에 해독 능력의 자동화가 중요하다. 해독 능력의 자동화가 완성되지 않으면, 향후 여기에 추가적인 인지를 할당해야하기 때문에 독해(讀解) 발달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글을 소리 내어 읽는데 떠듬떠듬 읽어서는 안 되며, 막힘없이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뜻의 파악은 아직 중시되지는 않는다.⁶⁾ 예를 들어, 어른들이 읽는 책의 내용은 이해하지는 못해도 소리 내어 읽을 수는 있어야 한다. 단지 소리만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단위로 적절하게 ‘띄어 읽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시기의 독서 자료로는 큰 책(big book), 오십음절표, 압운(rhyme)이 있는 글, 이야기(narrative text) 등이 활용되고, 독서 방법으로는 합창독(choral reading), 함께 읽기, 오독분석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텍스트는 학생들의 경험 세계와 유사한 서사체 텍스트가 많이 사용된다. 생활문, 우화, 동화, 일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3) 어린이 독자 중기—기능적 독서기와 기능적 독자

어린이 독자 중기는 초등학교 중학년인 3~4학년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앞선 시기에 습득한 해독 기능을 보존하면서 추가적으로 독서에 필요한 ‘핵심어 확인하기, 내용 확인하기, 중심 내용 파악하기,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생략된 내용 추론하기, 단어의 의미 추론하기, 인물의 마음 짐작하기’ 등과 같이 독서에 필요한 ‘중핵 기능(core skill)’을 익히고, 의미 중심의 묵독이 정착된다. 독서 발달 단계는 ‘기능적 독서기’로, 독자상은 ‘기능적 독자(skillful reader)’로 설정하였다.

6) 이 시기의 교재나 평가 도구를 보면 뜻이 없는 무의미 철자가 사용되기도 한다.

천경록(1999)에서는 이 시기를 ‘기초기능기’로 명명했으나 읽기 입문기에서 다루는 해독이나 띄어 읽기 등을 기초기능(basic skill)이라고 부르는 전통 때문에 혼란을 줄 수 있고, 읽기의 중핵 기능(core skill)을 다룬다는 점에서 명칭을 ‘기능적 독서기’로 수정하였다.

이 시기는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를 통해서 텍스트 내용을 꼼꼼히 읽을(close reading) 수 있어야 한다. 이 시기는 학습 독서(reading to learn)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국어과에서 배운 읽기 학습(learning to read)을 이용하여 사회과나 과학과를 비롯한 내용 교과의 학습 독서가 시작된다. 읽기 기능이 내용교과 학습에 도구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 시기에 학습한 읽기 기능은 중핵적 기능으로 다양한 독서 상황에 전이(轉移)될 수 있어야 한다. 텍스트 면에서는 설명체 텍스트(expository text)가 활용되기 시작한다. 설명문, 주장하는 글, 안내문 등이 사용된다. 대부분의 내용교과의 교과서는 설명체 구조로 되어 있다.

4) 어린이 독자 후기—공감적 독서기와 사회적 독자

어린이 독자 후기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5~6학년 시기에 해당한다. 앞 단계에서 습득한 읽기의 중핵 기능을 심화시켜서 텍스트 이해(comprehension)의 능숙도를 높이고, 텍스트와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자신의 반응을 주위의 동료와 교감하게 된다. 독서 발달 단계는 ‘공감적 독서기(empathic reading)’로 명명하고, 기대되는 독자상은 ‘사회적 독자(social reader)’로 설정하였다.

곽춘옥(2014: 294)에서는 공감을 인지와 정서 능력이 발현되어 독자와 텍스트의 소통, 독자와 독자의 소통을 도와주는 기제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Rosenblatt(2004)은 독서 자세(stance)를 설명하면서 정보 수집적(efferent) 자세와 심미적(aesthetic) 자세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식정보 텍스트나 문학 작품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므로 공감적 독서는 문학 작품 뿐만 아니라 지식정보 텍스트에도

적용할 수 있다.

천경록(1999)에서는 이 시기의 단계 명칭을 ‘기초 독해기’로 명명하였으나 본고에서는 ‘공감적 독서기’로 수정하였다. 그 이유는 1999년 연구에서 사용한 ‘기초 독해기’가 후속 단계인 ‘고급 독해기’와의 구분되는 독서 발달의 질적 특성을 명료하게 전달해 주지 못하였고, 최영환(2007)에서 설명한 독서 발달의 사회화 과정을 반영하는 단계 설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⁷⁾

이 시기의 독자들은 인지적, 정서적으로 독서에 몰입을 경험하고, 동료들과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독서 반응이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독서 지도에서는 이야기 나누기, 대화, 토의, 토론 등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왕성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는 글의 구조면에서 서사체와 설명체, 내용 면에서는 지식정보텍스트와 문학 작품을 골고루 읽으면서 텍스트에(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필자에 대해서도) 대한 인지적, 정서적 반응을 형성하고, 이를 다른 동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사회적 독서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5) 청소년 독자 전기—전략적 독서기와 전략적 독자

청소년 독자 전기는 중학교 1~2학년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초인지적 발달을 토대로 전략적으로 글을 읽게 된다. 이 시기는 독서의 중핵 기능을 바탕으로 자신의 독서 목적을 정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전략적 독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시기의 독서 발달 단계는 ‘전략적 독서기’로 독자상은 ‘전략적 독자(strategic reader)’로 설정하였다.

인간의 독서 능력에 대해 기능과 전략은 구별된다(천경록, 2009: 326-331). 동일한 독서 능력이지만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겉으로 관찰하는 기

7) 이재민(2020)에서는 18세기 독일 사회에 있었던 소셜 리딩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반복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 독서(독자) 발달에서도 사회적 독서(사회적 독자)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능에 주목하였으며, 인지 심리학자들은 관찰할 수는 없지만 머릿속에 작용하는 전략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기능적 독자는 주어진 기초기능이나 중핵 기능을 적용하는데 주력하지만, 전략적 독자는 기능을 잘 활용하여 자신의 독서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여기서 관건은 독자의 독서 목적과 초인지 능력이다. 전략적 독자는 독서 목적을 중시하고, 상황과 목적에 맞게 기능을 비롯한 자신의 독서 지원을 최적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된다.

6) 청소년 독자 중기—비판적 독서기와 비판적 독자

청소년 중기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한다. 학교급이 다른 두 학년을 함께 묶음으로써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교 급간의 단절을 예방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국민공통교육기간 10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시기는 필자의 의도 수용보다는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필자의 주장을 비판하는 데 주력하는 시기이다. 비판적 문식성 이론에서 잘 설명하고 있듯이, 필자는 텍스트를 통해 어떤 주장이나 인물을 부각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주변화 시키기도 한다. 현실 세계에서 가치중립적인 텍스트는 별로 없다. 그러므로 독자 입장에서는 필자의 잠복된 의도의 파악이 중요하다. 이를 고려하여 발달 단계는 ‘비판적 독서기’로, 독자상은 ‘비판적 독자(critical reader)’로 설정하였다.

비판적 읽기를 위해서는 텍스트의 이해뿐만 아니라 텍스트가 생산된 맥락, 텍스트가 유통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주목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독자는 필자가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인물, 주장을 파악하고 그렇지 않은 점도 파악하여 실제 세계(real world)를 알아야(understanding) 한다.⁸⁾

8) 글에서는 보통은 ‘이해하다’로 같이 번역되고 있는 comprehending과 understanding 을 구별하여 사용하였다. 전자는 ‘텍스트 이해, 작은 이해’의 뜻으로, 후자는 ‘텍스트와 맥

7) 청소년 독자 후기—종합적 독서기와 통합적 독자

청소년 독자 후기는 고등학교 2~3학년 시기에 해당한다. 교육과정과 관련하여서는 국민공통 교육기간이 끝나고 선택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창의적 독서, 신토피컬 독서(syntopical reading) 능력을 보이는 단계이다. 독서를 통해 텍스트를 수용한 후에 새로운 대안적 텍스트를 생산해 낼 수 있어야 한다. 텍스트의 면에서는 단일 텍스트(single text)보다는 다중 텍스트(multiple texts)를 읽고 융합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자 문화 시대로의 변화에 따른 매체 자료에 대한 수용 능력도 요구된다.⁹⁾ 이 시기의 독서 발달 단계는 ‘종합적 독서기(synthetic reading)’로, 독자상은 ‘통합적 독자(integrated reader)’로 설정하였다.

11~12학년 시기는 선택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독서교육은 대학의 학업 독서(college reading)와 졸업 후 직업 독서(career reading)와 연계된다. 학업 독서와 직업 독서에서는 단일 문서를 읽기보다는 여러 문서를 읽고 종합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 문서나 텍스트, 매체 자료를 종합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8) 성인 독자 시기—독립적 독서기와 자율적 독자

성인 독자의 시기는 중등학교를 졸업한 이후(post secondary)에 해당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과 같은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한 사람들, 그리고 중등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이나 사회로 나가는 독자들에 해당된다. 학업 독서, 직업 독서, 교양 독서가 주를 이룬다. 독서 발

락의 이해, 큰 이해(앎/지식)’의 뜻으로 사용하였다.

9) 박영민(2003)은 구술 문화에서 문자 문화로의 사회적 변화를 설명하였다. 이남호(2006)와 노명완(2012: 18-25)에서는 문자 문화에서 전자 문화로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 문화로의 변화가 독서에서 정착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여 독서 발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종합적 독서기에 매체 자료 읽기를 포함시키는 정도로 다루었다.

달 단계는 ‘독립적 독서기(independent reading)’로, 독자상은 ‘자율적 독자(self regulated reader)’로 설정하였다.

성인교육(andragogy)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자율적이며 자기주도적 학습이 본질이다. 이는 유치원 교육과 초중등 보통교육 시기가 아동교육(pedagogy)에 해당되며, 성장기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타율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대비된다. 성인 독자 시기에는 독자 자신이 자신의 목적에 따라 책을 선택하고, 읽고, 책과 독자 자신을 평가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독자에서 비독자(non reader)로의 전환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

IV.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에서는 독서 발달에 대한 기준 논의를 살펴보고, 독서 발달의 단계를 독자 발달과 연계하여 새롭게 제안하였다. 독자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독자로 발전하며, 학교교육 시기에 해당하는 어린이 독자와 청소년 독자는 다시 각각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독자 발달에 맞추어 독서 발달 단계를 ‘읽기 맹아기, 읽기 입문기, 기능적 독서기, 공감적 독서기, 전략적 독서기, 비판적 독서기, 종합적 독서기, 독립적 독서기’로 설정하였다. 각 단계의 독서 발달 특징을 고려하고, 해당 단계의 독서교육의 지향점이 될 수 있도록 독자상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러한 독자상은 ‘잠재적 독자, 유창한 독자, 기능적 독자, 사회적 독자, 전략적 독자, 비판적 독자, 통합적 독자, 자율적 독자’로 제안하였다.

독서 발달 단계에 맞추어 해당 단계에서 나타나는 독서의 주요 특성과 독서 자료 및 독서 활동의 특성도 함께 제시하였다. 각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의 특징을 보유한 상황에서 해당 단계의 특징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발달 특성으로 가정되었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독서교육은 초중등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대학, 도서관, 종교기관, 공공단체, 직장, 병영, 교정기관 등 여러 곳에 일어난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서 일어나는 독서교육을 계속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본고에서 제안한 개념들이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 본 논문은 2020.8.14. 투고되었으며, 2020.8.21. 심사가 시작되어 2020.9.10.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곽춘옥(2014), 「공감적 읽기를 위한 동화 낭독」, 『독서연구』 31, 287-316.
- 김혜정(2001), 「비판적 읽기의 개념과 성격」, 『국어교육』 105, 59-88.
- 노명완(2012), 「독서와 작문: 그 개념의 변천과 지도 방법에의 시사점」, 『독서연구』 28, 9-51.
- 박영민(2003), 「독서의 발달과 음독에서 묵독으로의 이행」, 『국어교육』 111, 59-86.
- 엄훈(2011),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 발달 양상 연구 - 해부호화 능력을 중심으로 -」, 『한국초등국어교육』 46, 191-217.
- 이남호(2006), 「우리 시대의 독자는 누구인가 - 전자문화시대의 독자의 성격 -」, 『독서연구』 16, 9-20.
- 이성영(2008), 「읽기 발달 단계에 대한 연구 - 몇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 『국어교육』 127, 51-80.
- 이재민(2020), 「소설 리딩과 독서 혁명 - 19세기 독일의 독서협회를 중심으로」,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42, 205-226.
- 임미성(2011), 「이동독자의 읽기 발달과 읽기 지도」, 『한국초등국어교육』 46, 301-326.
- 정옥년(2007), 「독서의 정의적 영역과 독자 발달」, 『독서연구』 17, 139-180.
- 천경록(1999), 「읽기의 개념과 읽기 능력의 발달 단계」, 『청람어문교육』 21, 263-282.
- 천경록(2009), 「읽기 교육 내용과 지식의 깊이」, 『독서연구』 21, 319-348.
- 최영환(2007), 「독서의 인지적 영역 발달과 사회적 관점」, 『독서연구』 17, 41-64.
- Bereiter, C. (1980), Development in writing, In L. W. Gregg, & E. R. Steinberg(Eds.), *Cognitive process in writing*, Hillsdale, NJ: LEA.
- Chall, J. S. (1996), *Stages of reading development*, (2nd Ed.), Orlando, FL: Harcourt Brace.
- Rosenblatt, L. M. (2004), The transactional theory of reading and writing, In R. B. Ruddell & N. J. Unrau(Eds.), *Theoretical Models and Processes of Reading*, (5th Ed.), Newark, DE: IRA.

독서 발달과 독자 발달의 단계에 대한 고찰

천경록

이 연구에서는 독서 발달 단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점검하고 새롭게 단계를 제안하였다. 독서 발달 단계를 독자 발달과 연계시켰고, 해당 단계의 교육의 결과로 기대되는 독자상도 함께 제시하였다. 독서교육이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과 연계하여 기획될 수 있도록 독자 발달을 유아 독자, 어린이 독자, 청소년 독자, 성인 독자로 설정하였다. 초중등학교에서 독서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어린이 독자와 청소년 독자 시기는 2년 단위로 끊어서 전기, 중기, 후기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독자 발달 단계에 맞추어 독서 발달 단계와 독자상을 ‘읽기 맹아기(잠재적 독자), 읽기 입문기(유창한 독자), 기능적 독서기(기능적 독자), 공감적 독서기(사회적 독자), 전략적 독서기(전략적 독자), 비판적 독서기(비판적 독자), 종합적 독서기(통합적 독자), 독립적 독서기(자율적 독자)’로 제안하였다. 해당 단계에서 나타나는 독서의 주요 특성과 독서 지도 활동 및 자료의 특성도 함께 기술하였다.

핵심어 독서, 읽기, 독자, 발달, 단계, 독자상,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ABSTRACT

Revisiting the Stages of Reading and Reader Development

Cheon Gyeongrok

This paper presents the revised version of the stages of reading and reader development. Reader development included preschool readers, children readers, adolescent readers, and adult readers. Children's and adolescent's periods were set at the beginning, mid-term, and later periods successively. In light of this, the stages of reading and the ideal reader model were set as 'emergent reading (emergent reader), beginning reading (fluent reader), skillful reading (skillful reader), empathic reading (social reader), strategic reading (strategic reader), critical reading (critical reader), synthetic reading (integrated reader), and independent reading (self-regulated reader). This paper also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of reading materials and reading activities related to each stage.

KEYWORDS Reading, Development, Stage, Reader, Preschooler, Children, Adolescent, Adult